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이번 주 금요일(6월 19일) 저녁 7시 30분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2009년 제2차 청지기훈련
‘특별 기도’ (누가복음 6:12)



이번 주 금요일, 2009년 제2차 청지기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말씀의 만찬입니다. ‘특별 기도’ (눅 6:12). 이것이 이번 만찬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 주신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과 그 능력에 대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특별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뿐입니다(눅 15:1). ‘기도에 대한 여느 설교와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라고 일부는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내려진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간절한 기도(히 13:18)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을만한 최적의 심령이 되도록 이번 주간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십시오.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묵상하시고 금요찬양집회에서 배웠던 6곡의 찬송도 충분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실 위임목사님의 강권함과, 청지기훈련을 수종드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살전 5:17). 주님이 베푸신 잔치에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복음이 필요한 주변의 친지와 이웃들을 강권(눅 24:29)하여 함께 나오도록 하십시오. 청지기훈련 당일에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둘러 교회로 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실도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 1:4).

*청지기훈련 안내 및 작성 배치도는 본지 7면 참조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회)

고행의 길을 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보다도 인간을 찾는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참으로 잘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이들이야말로 가장 처절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다(롬 3:28). 이들은 늘 애통해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로하여 줄 사람을 찾는다. 자신의 죄책감을 위로하여 줄 사람으로 대중에게 존경받는 종교지도자를 찾는다. 종교지도자가 하나님의 하나뿐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 하게 되는 것이다(골 2:20~23). 그러나 종교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자신뿐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해치게 된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지도자 자신들 또한 죄인이며,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 더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과 찬양받기를 즐긴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우리 자신의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는 사람들이 빈 몸통 같은 우리 자신들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떠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는 것이다(요 7:37~38).

현대인들은 목사, 신부, 랍비, 정신과 의사, 교사, 부모 또 경건한 친구들을 그리스도의 대역으로 삼으려 한다(살후 2:3~4). 많은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어지면서 훌륭한 지도자나 목사를 찾는 일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인간 자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현대인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느라 급급하다. 특히 자신에 대해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뿐 아니라 자기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와 같은 때에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얼굴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사랑하며 저들을 향하여 말씀을 강조하여, 절대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죄를 범했다거나,

예수님을 알지못한 전혀 확신의 열매가 없다고 고민하면서 고해성사를 할 때에 인간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한다.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성경을 통해 말해 주어야 한다(고전 2:2,5).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죄와 싸우며, 간절한 기도와 정직한 기도로 교만함을 방어하는 것을 보여 주며, 또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체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죄 용서함은 하나님인 아들 그리스도의 회개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딤후 1:15, 딤후 2:11).

시편 32편은 기쁨의 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일 대하여 기뻐하고 있다(시 32:1,11).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의 기쁨은 다시 회복되었다(시 32:5). 하나님께서 회개자로 구속, 속죄하여 주사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이다(사 53:5). 이러한 죄 용서함은 전체적인 용서이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한 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롬 4:6~8). 이것이 곧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 더 깊은 것이 숨어있다. 우리는 다윗처럼 참된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으며, 종일 신음하며 해마다 다녔다(시 32:3,9). 그러나 나의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고 숨김없이 아뢰는 때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할 수 있는 책임권조차 없어진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십자가의 비밀이며 능력이다(고전 1:18~19, 22~24).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칭해 주신 중보자이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자신의 의로움을 버리고, 모든 죄악을 그대로 정직하고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아멘.

DON'T BE SCARED

⁽¹⁾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²⁾Therefore we will not fear, though the earth should change

And though the mountains slip into the heart of the sea;

⁽³⁾Though its waters roar and foam, Though the mountains quake at its swelling pride. Selah.

(Psalms 46:1~3)

Right now we are living in very troubled times. The worldwide economic downturns, environmental disasters, political unrest, and social maladies are growing worse. Families, many of them now broken, across the globe are facing depressing and frightening hardships. Generally speaking, when a problem comes, people tend to think about it, perhaps discuss it with others, and then try their best to fix it, but how do you fix a sudden incoming tsunami or handle a magnitude 10.0 earthquake? If the devil focuses on you and tries to attack you, using not just other humans, but fallen angels and the earth itself, what are you going to do? Today's Bible verses were written as Israel became the target of assault from many enemies. The message given is clear: God's children don't need to be scared when terrifying things happen. Why not?

God's presence is always with you. His help is present and proven, ready and reliable,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Ps. 46:1). God provides His children a shelter from danger. His strength gives them courage in danger. You are always safe in His presence. He is with you from beginning to end without fail. God personally loves you. He is not an impersonal God. Psalms 23:1 reminds us,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The Creator of this earth is your shepherd. He will always protect you. You can always hide or seek sanctuary in Him. When the storms of life come, no matter what form or power, you are safe and sound with God. He strengthens and empowers the weak. Isaiah 40:29~31 says, "He gives strength to the weary, And to him who lacks might He increases power. Though youths grow weary and tired, And vigorous young men stumble badly, Yet those who wait for the Lord Will gain new strength; They will mount up with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et tired, They will walk and not become weary." God is not too great to care. He renews all those who wait on and hope in Him. You can exchange your strength for His. My dear friend, God is much greater than any troubles you face. Please remember that He is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because He is always with you.

God's peace is always with you. Whatever happens, if you trust God then you will have no fear and His peace which passes all understanding will fill you, "Therefore we will not fear, though the earth should change And though the mountains slip into the heart of the sea; Though its waters roar and foam, Though the mountains quake at its swelling pride"(Ps. 46:2~3). If you have faith and hold on to it during trembling times, whatever more comes will only make your faith stronger, and you will feel even more peace. When your faith comes then your fears flee because

of God's great peace. Romans 5:1 says,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During a fierce storm, Jesus stood up in a boat and said to the wind and sea, "Hush, be still"(Mk. 4:39), and everything became perfectly calm. Is your faith in the One who calms the seas? If the earth moves and the Mountains fall into the oceans, at this time will you be scared? If the waves rise to great heights and the winds travel at great speeds, at this time will you have peace? My dear friend, if you keep your heart heavenward then all will be well always. John 14:1~3 remind us,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Please remember that there is no need to be scared because God is with you and He will give you His peace.

God's promises are always with you. He says, "Cease striving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Ps. 46:10). God is at work when your world is shaking. He destroys the destroyer. He makes weapons worthless and wars cease. Romans 8:28 says, "And we know that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to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Whatever thing or things appear bad to you, God will make sure everything turns out good for you. Do you believe it? Romans 8:14~15 say, "For all who are being led by the Spirit of God, these are sons of God. For you have not received a spirit of slavery leading to fear again, but you have received a spirit of adoption as sons by which we cry out, 'Abba! Father!'" My dear friend, you can trust the promises of God. Your heavenly Father will never let you down. The moment you received Jesus Christ as your Savior you became a child of God(Jn. 1:12). He will never, ever fail you. Please remember that God will save you and love you eternally.

God is with His children from beginning to eternity, and we can take comfort in His peace and promises.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we become part of God's loving family. God did not say that we would not experience tribulations, in fact, Jesus says,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Jn. 16:33). In times of trouble; however, we can have constant relief in His presence, peace, and promises. Every day begins with God's presence and ends with God's presence. His grace is sufficient when the world is shaking. We can trust Him to bring us safely through. Amen. 

| 다음 주일 설교 |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셀라)

(시편 46:1~3)



김성완 목사

우리는 지금 매우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공황, 환경 재해, 정치적 혼돈, 사회적인 병폐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닥쳐올 고난으로 인해 전 세계가 근심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이 닥칠 때 사람들은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쓰나미나 강도 10의 지진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마귀가 여러분을 목표로 삼고 공격해 온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나 세상의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많은 대적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말씀에 담겨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현재형이며 입증된 것이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믿음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위험한 순간에 피난처를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은 위험한 순간에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분은 실패함이 없으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편 23:1은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리로다.” 이 세상의 창조자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피할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 은신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또 어떤 힘을 지녔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안전하며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주십니다. 이사야 40:29~31은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연약한 인생들을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는 모든 자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을 때 당신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도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시 46:2~3). 만약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그것을 확고히 붙들고 있다면, 혼탁한 시대를 사는 동안 그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평강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1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나운 폭풍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배 위에 우뚝 서신 채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막 4:39).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에게 있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 빠질 때 두려워할 것입니까? 파도가 치고 강풍이 휘몰아칠 때에도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을 향해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1~3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랴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시 46:10).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계가 흔들릴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파괴자를 소멸하십니다. 그분은 무기들을 쓸모없게 만드시고 전쟁을 멈추시니다. 로마서 8:28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로마서 8:14~15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은 신뢰해도 좋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요 1:12).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며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평안과 약속 안에서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데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 약속 안에서 변치 않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루를 마칠십시오. 세상이 심하게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부추김이 없습니까? 환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

수요 1부예배 메시지(2009. 6. 10)

성령의 일 (갈라디아서 5:16~26)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성령의 일을 하며 올바른 삶을 살라고 애쓴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일과 관계없을 때가 많다. 무엇이 문제인가? 성령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참 자유가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참 그리스도인인가?

검슨과 경건은 있지만 여전히 내면에는 자아가 살아서 자신이 무언가 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하지 않는가? 그래서 성령의 일조차도 성령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강요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지 않은가? 바울은 성령의 일을 얻으시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 성령의 일을 하는 성령의 사람에게는 참 자유가 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위선과 외식, 전통과 권위에 빠진다.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바로 이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결국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율법을 섞었다(갈 5:2~9). 십자가에 맞춘 초점이 흐려질 때 믿음의 흔들리며, 순수 복음이 아닌 세상과 섞인 ‘다른 복음’을 만들게 된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때 세상의 말에 휩쓸린다. 사람의 눈치를 보다 적당히 타협하게 된다. 이와 같은 약행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 모든 조정을 맞추자(갈 5:10~15). ‘믿음은 완전한 자유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하는 사역이 아닌,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일을 하게 된다.

인도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걷도록 성령께서 이끄신다(갈 3:11, 5:18). 이 길은 세상이 가지있게 여기는 방향과는 정반대이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롬 8:14).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마 4:1).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3).

마가복음 강해 75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다 (14:12~21)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유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켜야만 했다(신 16:5~6).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였다. 이때가 유월절, 양 잡는 날인 무교절 전날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성당 안에서 유월절을 잡으시겠습니까?”(막 14:12). 이에 예수님은 제자 중 둘을 택하여 지시하셨다. “성대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있어 있나 하시리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막 14:13~15). 이 모습은 예루살렘을 임성하기 전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시키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막 11:2~3). 예수님의 지시에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하였다(막 14:16).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장소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그곳은 ‘큰 다락방’(막 14:15)이었다. 큰 다락방은 마가의 집에 있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다. 이 식사는 파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뻐하는 첫 성찬이었다. 성찬찬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신 예수님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막 14:18).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안타까운 일을 숨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밝히셨다. 사실 가롯 유다는 이 식사가 있기 전에 이미 제사장들을 만나 예수님을 팔아 넘긴 상태였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에 제자들은 놀라서 한 명씩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말했다(막 14:19).

명령하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신다. 이 명령에 따를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갈 5:16).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오직 성령만이 이길 수 있기에 우리는 성령에게 절대 순종해야 한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들리는가? 그 명령이 들린다면 실천하자(행 1:8, 사 48:16).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행 13:4).

힘을 주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세상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갈 5:22~23). 성령의 열매는 곧 생명의 열매다(요 6:63). 나의 모든 생각,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요 3:5~6).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증인이 되신다 성령은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갈 5:25)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증언(롬 8:16)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럼에도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은 진실로 옹졸하기 그지없다. 주기도마 6:9~13을 진실로 고백하자. “이름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요일 5:6).

깨닫게 하신다 성령은 나를 깨닫게 하신다(롬 5:5).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의 일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요 16:14).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

초대하신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신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 22:17).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일을 하고 싶은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자. 이는 모든 외식과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려는 의미이다. 성령의 일을 인간의 일로 편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도록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일을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할 수 있다. 성령의 일이 곧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한다. 아멘.

자신은 절대로 배신자가 아니라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모세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라 그러나 내 택을 먹는 자가 내게 발목질을 들었던 한 성경을 옹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요 13:18).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성경을 옹호하게 하려는 것’은 시편 41번 9절 말씀의 성취이다. 예수님은 먹을 때에 주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다(요 13:26 ; 막 14:20). 심지어 그가 누구인지 짐작하게 하셨다(마 26:25). 가롯 유다는 유능한 제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뢰를 많이 받았지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으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잘못임을 뒤늦게 깨달았을 뿐 회개하지 않았다. 자존심이 강한 가롯 유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보다는 자신이 책임지려고 했기에 결국 자살을 선택하였다. 가롯 유다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끝내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은 편하였느니라 하시니라”(막 14:21). 인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가롯 유다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외면하고 잊지는 않은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갈구하고 있지 않은가?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자(막 2:10).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을 앞세울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르게 된다. 온종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인자가 된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가롯 유다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실족하게 할 것이다(막 9:42). 주님의 경고를 잊지 말자(히 10:29~31).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님을 따르자. 아멘.

* 마추 윌도슨목사(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소망이 영원히 뿌리내리기를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오랜 기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부담감과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신지라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워낙 노령이시기에 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 힘들었으나 모든 근심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순종하니 제게 참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만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더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떠났으나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느낀 더위는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로 인해 선교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으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실 주의 능력을 기대하며 힘차게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역시나 저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밤에는 비를 내려 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해를 가려 주시며 그렇게 늘 선교현장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무기력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표정의 그들이 참 소망이신 복음을 전해 듣고 함께 찬양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의 소망이 영원히 뿌리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그냥 방치된 많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라날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안타까워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진정 아이들이 복음의 종인들로 자라나 이 땅에 복음이 자리잡길 소망합니다. 선교지를 떠나오면서 선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한정되어 있었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사랑하사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기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땅을 사랑하며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러 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팀원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한 사람의 모습들은 감춰 주시며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김현근(안수집사, 6교구)

수화 칼럼 ⑤ 사도 신경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고통으로 인하여 기절하거나 죽은 적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은 멈추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은 삼 일 만에 부활하셨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셨다. 이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기회를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은총은 베풀어졌다.

1. 장사한 지



2. 사흘 만에



3. 죽은



4. 자



5. 가운데서



6. 다시



7. 살아나시며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8일(월) - 6월 16일(화)	9교구 1팀	구정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일(화) - 6월 10일(수)	1교구 1팀	구원섭
6월 3일(수) - 6월 12일(목)	3교구 1팀	김 광
6월 4일(목) - 6월 11일(금)	5교구 1팀	이정태

선교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



4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선교를 떠나기 전 저는 "왜 나일까? 왜 하필 나일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 의문은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위임복사님께서 두 협단을 헌금한 가난한 파부 예화에서 "주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셨기에 이루실 것을 믿고 모든 열려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모세가 했던 것은 기도였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셨습니다. 모든 선교사역을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리라 생각하며 사역에 임하였습니다. 파송예배를 위해 새벽 3시부터 교회에 모여 팀기도회로 시작된 선교사역은 우리의 육신을 피곤하게 하였고,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은 우리를 지치고 불평하고 짜증내기 충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서 져서는 안 되며 우리를 보내놓고 기도하는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위하여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에는 평화를 주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교사역은 날마다 감동이었습니니다.

토요일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힌두사원에 가서 의식을 행하고 이마에 빨간 표를 받고 오는 남매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죄라고 말하자 즉시 이마의 표식을 지웠으며 우리의 주일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자전거에 발목을 다쳐 상처가 깊고 고열로 힘없이 누워있던 아이를 의사인 팀원 한 분이 치료해 준 후 기도하고 나왔는데 얼마 후 아이는 곧 일어나 앉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현지인 서너 명이 모인 곳에서 우리 팀원 11명이 현지어로 5분 정도 반복하여 찬양을 부르며 주위에는 어느새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율동을 가르칠 때 주님은 영적인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어 주셨습니다. 또 많은 무리 중에 섞여 있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하였고, 예수님을 믿으려 해도 주위에 교회가 없다고 하는 이에게 성경책을 주며 매일 읽으라고 권면하자 얼굴이 밝아지며 기뻐하는 모습도 보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선교는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이며 우리는 다만 주님의 도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11명의 팀원이 하나되어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기도의 힘이라 믿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선교팀을 위해 남아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이번 선교사역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석귀수(권사, 20교구)

10년 만에 돌아온 친구 부부



지난 15년간 주님 사랑 안에서 만난 제 친구 부부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교구의 총동원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약 10년 전 이 부부를 회교로 인도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집회에는 잘 참석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부꾸박 출몰서 예배에만 참석하였습니

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으나 세상 일에 우선 매달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

다. 후 친구의 남편은 다른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친구는 가끔씩 교회에 가는 정도였습니

다. 부족한 저 때문에 제 친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미안하여 만날 때마다 천령교회에 다니며 같이 믿음 생활하자고 하였습니다. 옛날의 저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부부가 주님 앞에, 말씀 안에 있는 모습을 생각해 달라고. 그리고 작년에 준비한 저의 '빨간 기도 수첩'에 이름을 올려놓고 주님께서 천령교회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와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마음 속으로 기도했습니

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남편으로부터 이제 천령교회에서 저희 부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전화가 왔습니

다. 눈물이 앞을 가렸고 주님께서 저희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시를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주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새가족양육에서 안락을 받으며, 성경공부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은 어느 날 그들 부부로부터 "천령교회에 가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

다. 다시 돌아온 친구 부부가 예배를 통해 십자가 사랑과 말씀을 깨닫고, 성경공부도 하고 단기선교도 같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끝까지 믿음의 식수로 지낼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박경혜(집사, 13교구)

기도원 텃밭, 믿음의 열매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던 전과 달리 세월이 갈수록 자연의 조그마한 계절의 변화에도 사춘기의 감성이 되살아난다. 오늘은 5월의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말씀과 기도

와 찬양이 있는 예배는 물론, 지난 며칠동안 텃밭의 농작물이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함을 품으며 기도원 가는 길, 우리의 마음은 벌써 영육으로 감전해짐을 느낀다. 2009년 3월부터 시작된 기도원 텃밭 가꾸기는 천령기도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더욱 의미있게 해준다.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자라가는 모습과 몹시 흡사하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열매 맺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기경해야 하듯, 먼저 씨와 모종을 파종하기 전 쉬고 있었던 땅에 거름을 주어 옥토로 만들어야 한다. 혼자 잘 서지 못하는 연약한 가지들 동역자의 역할인 막대기와 끈으로 지지하고 수시로 잡초도 뽑아주고 돌보고 가꾸면 땅은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 줄 것이다. 구역과 지역, 교구 식구들과 더불어 뜨거운 햇빛 아래서 땅을 돌리며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 또 기경한 뒤 때마다 맞추어 내리는 비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

기도원에선 열린 교구 영성훈련과 그 시기가 절묘하게 맞물린 풍성한 첫 수확의 기쁨에, 교구의 많은 분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떤 남집사님은 매번 텃밭 작업 때마다 앉아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 하고 계신다. 미안한 마음 뿐인데, "아직도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시며 찬조까지 해 주셨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 8:9). 성도의 교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도의 사랑으로 어느 새 가슴이 뚫히게 된다. 복음에 합당한자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 된 터 위에 자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며 추수의 가을에 땅 위에, 그리고 땅 속으로 주렁주렁 열매 맺어 일어날 수확을 기대하며 교구는 물론 교회의 부흥을 기도한다(마 13:23).

이미주(권사, 14교구)



목마른 사슴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목이 마른다. 그래서인지 권사님들은 자주 물을 마신다. 또 수시로 사탕을 꺼서 드신다. 대부분의 권사님들의 가방에는 물이 있고 사탕이 있다. 조용히 가방을 열어 보스락보스락 사탕을 꺼서 드시는 권사님들의 모습은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모른다. 오늘날 권사님들은 물과 사탕을 챙기시어 부지런히 교회에 오신다. 그러나 아무리 사탕과 물을 드셔도 권사님들은 목이 마른다. 육의 갈증을 해소했으나 이번에는 영의 갈증으로 목이 마른다. 권사님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말씀을 찾아 시냇가를 헤맨다. 이런 권사님들의 마음을 읽은 하나님께서 목마른 권사님들을 말씀 잔치에 초대하셨다. 아름다운 오월에 영의 양식이 충만한 맑은 시냇가에 자리를 펴고 권사님들을 초대한 그곳은 갈릴리움이다. 그곳에서 2009년도 권사회 수련회가 있었다.

말씀은 역설(逆說)로 시작되었다. 감사 목사님은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라'고 진심어린 권유를 하셨다.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고 역설하셨다. 말씀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면 약한 질투심이 사라진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평생 집요하게 나를 따르는 질투심 때문에 내심 수치스러워하던 나로서는 놀칠 수 없는 해박이었다. 목사님께서선 요나를 불러오셨다. 말씀은 요나를 조명하지만, 말씀의 거울 속에는 요나 대신 내가 있다. 가나안만 벗어나면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요나의 알파한 어리석음은 나의 어리석음이었었고, 도망가다 고래 뱃속에 갇힌 것도 나였다.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는 눈물 어린 절규도 바로 나의 것이었다. 요나가 내 속에 들어와 실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운동복 있는 말씀이 되어 내 영을 흔들어 놓았고, 그 순간 나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았다.

어쨌든 일인지 감사 목사님께서선 "졸리면 편하게 주무십시오."라며 독박을 시작하셨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구리일까? 아마도 결코 없었다. 주제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와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주님의 종인'이 되자'였다. 무지몽매한 선조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거룩한 피의 역사를 통해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웅골지게 집어넣어 주셨다. 죽은 선교사들의 피가 '일어나라' '기라' '전하라'며 내태하기 짝이 없는 나의 등을 마구 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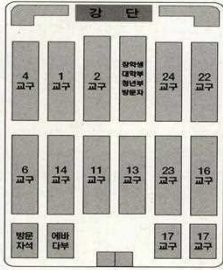
나의 사랑하는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 배가 조금만 고파도 고르륵 신호가 오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거르기 어렵다. 그러나 영의 문제는 다르다. 정작 며칠씩 먹지 않아도 고르륵 신호가 안 온다. 설령 신호가 온다 해도 예민하지 않으면 알아채리기가 쉽지 않다. 주를 취하지 그 동안 나는 영의 양식을 구하는 일에 많이 게을렀다. 이번 권사수련회는 텅텅 비어가던 나의 영의 창고를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주셨다. 육의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영이 갈급하면 말씀을 먹으려구나. 아! 생이라는 선물을 두 팔 가득 안겨주시는 오묘한 주의 섭리에 순간순간 나는 감동한다.

정연희(권사, 5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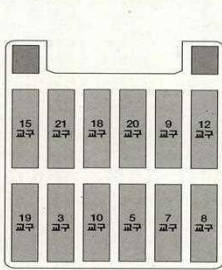


정치기훈련 좌석 및 안내

본당 1층 좌석배치



본당 2·3층 좌석배치



- 출석표에는 교구, 교사, 찬양대 등 자신이 속한 교구 및 부서를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탁아부실(0~3세: 작은 방, 4~7세: 큰 방)을 운영하신 어르신들이 바라며, 어린이와 같이 참찰할 분은 영아부실(부모와 3세 이하), 배디나홀(8세 이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로에 주차된 차량은 서둘러 이동하시고 차량안내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는 반드시 차량안내부원의 지시에 따라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십시오. 교회 열릴 주차 시 주차회 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정치기훈련 찬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정치기훈련 시 드릴 찬송들은 기존 찬송가에 있는 곡이지만, 편곡이 되었기에 주의를 기울여 할 부분이 있다. 그 중 특히 유의해서 불러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았다.

내가 깊은 곳에서[2009 총현안정책집 268쪽] 1~2절은 조용하고 간절하게 부르며 3절에서 2부(스프라노와 테너는 첫 소절, 엘도와 베이스는 아랫 소절로 부르며 4절로 들어가기 전에 반주형태가 화려하게 변하면서 하는 보좌를 움직일 만큼 힘있게 찬양한다. "변함없는 주님만" 이 부분부터는 더욱 힘있게 찬양해라 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2009 총현안정책집 238쪽]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느낌으로 놀임표(페르마타)에서는 충분히 박자를 늘어 찬양한다. 각 절마다 음의 세기는 작게, 조금 크게, 크게 부르며 4절 '빈들에서나 신에서 부르는 익한 세례를 돌리실 수 있는 힘으로 부른다.' 큰 볼을 보여 주셨나!에서는 템포가 6박자로 바뀌기 때문에 주의하고 그 다음 마지막 "이런"에서는 다시 2박자의 템포로 부르며 끝난다.

마음속이 근심있는 사람들[2009 총현안정책집 308쪽] 전주에서 곡 전체의 느낌이 다 드러난다. 3마디 첫 번째 박자까지의 악센트가 마음속이 근심 있는 사람이 힘 있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뒤의 이음줄과 음의 세기가 작아지는데 이것은 "주 예수 앞에 다 이워야라"를 표현한다. 4절은 각각의 음표 하나하나 충분히 늘려서 십자가 군병들의 순종자처럼 찬송한다.

어두운 내 눈 밝히소서[2009 총현안정책집 418쪽] 전주에서 곡의 전체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다. 어두운 세상에서 벗어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른다. 3절은 완전히 봉헌된 임을 티드르 복음을 널리 전하기를 소원하는 맘으로 힘있게 부르고 곡의 각 절 사이에 쉼거나 긴 간주나 나오는데 잘 들으면서 가사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찬송한다.

주 예수여 은혜를[2009 총현안정책집 678쪽] 전체적으로 2박자의 느낌으로 부르며 성령의 강한 심령의 느낌으로 찬송한다. 이 찬송의 1~2절은 빠르게 2박자, 3~4절은 조금 천천히 부른다. 4절 이후 간주가 끝난 후 박자는 6박자로 아주 천천히 크게 부르며 75마디에서 빠른 2박자로, 78마디에서는 6박자로 늘어난다. 이 찬송은 박자에 주의를 기울여 불러야 한다.

너 성결기 위해[2009 총현안정책집 228쪽] 원래 6박자의 곡이지만 2박자의 템포로 부르며 전체적으로 작게 찬송한다. 4마디에서 2부로 나뉘며 때에 따라 성부의 음역이 낮아짐에 음정에 주의한다. 4절이 시작되는 65마디에서는 때로 때로 아름다운 가사 주위 테스칸다 나오는데, 테스칸다의 리듬은 멜로디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자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백선록(집사, 찬양위원회)

이근호(안수집사, 20교구)

새가족

축

을

안

영

합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972	오민욱	22 중동1부	김준하(22)	981	이영희	7 유년부	황경환(2)	990	박지훈	3 유년부	백승환(24)	999	김한규	22 장년2부	백성환(23)	1008	김진규	6 장년1부		1017	김영일	9 장년1부	김경미(9)
973	이성민	23 장년2부	이진호(23)	982	이영진	7 소년부	황경환(2)	991	신종수	4 대부부	임광준(24)	1000	조원익	24 소년부	주은하(24)	1009	장영혜	23 장년2부	김순제(23)	1018	허정호	23 대부부	김창환(9)
974	김소현	17 장년1부	박진희(17)	983	김민서	20 장년4부	이은재(4)	992	김지훈	1 중동2부		1001	이태현	12 장년2부	김지현(18)	1010	조원익	10 중동부	백승환(10)	1019	김재우	3 중동부	김창환(9)
975	변지영	8 중동1부	안성희(8)	984	허광진	16 장년4부	정효준(11)	993	김진호	1 유년부		1002	신정현	12 고부부	백승환(10)	1011	조원익	10 유년부	백승환(10)	1020	정영민	6 중동부	신지호(9)
976	김영준	14 중동1부	최재진(10)	985	변성희	6 대부부	황경환(2)	994	박승욱	2 장년2부	김창희(9)	1003	최영준	23 장년1부	나오현(11)	1012	윤재민	19 장년2부	조수현(19)	1021	송준호	10 장년1부	이규철(21)
977	성정호	15 중동1부	하은숙(15)	986	김민호	15 장년1부	조은숙(15)	995	송준혜	23 장년2부	이만순(24)	1004	노정숙	23 장년2부	강정화(14)	1013	송순희	19 장년1부	장은숙(19)	1022	장지혜	24 장년1부	김진수(21)
978	이광준	23 장년2부	정영희(7)	987	박준식	12 장년1부	이일성(8)	996	박재식	9 장년1부	김희재(2)	1005	김남희	25 대부부	김현진(25)	1014	장정훈	5 대부부		1023	박진민	10 장년1부	이규철(21)
979	정동현	12 장년2부	박진수(16)	988	임정훈	17 장년1부	이일성(22)	997	최지연	8 장년1부	이일성(8)	1006	김기재	19 장년2부	권은숙(18)	1015	장영민	11 대부부	김동현(11)	1024	김일철	12 장년1부	임성희(24)
980	문정희	13 장년2부	정은숙(13)	989	김성훈	15 장년2부	황재현(14)	998	장혜문	22 장년1부	방종훈(15)	1007	우승훈	19 장년2부	홍복희(18)	1016	이소희	14 장년1부	김재현(18)				

* 총현안회의의 회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본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표도 소지기 바랍니다. *



제2차 정치기훈련을 기대하며

나의 56년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느껴본 때는 진정 올해가 아닌가 싶다. 올해 1월 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을 때 아내의 슬픔과 걱정으로 이를 밤을 지새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올랐다고 했다. 나도 주님 앞에 올랐던 수밖에 없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후 나의 마음에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어느새 평안함이 내 영혼을 덮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수술과 치료과정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1월 29일 수술대에 오른 나는 진단을 받고 드렸던 기도를 상기했다. 5시간여의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돌아온 나는 2시간 동안 수술 후의 통증을 느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나날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위해서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과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사랑한다 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두 팔 벌려 댈 바라하셨던 두 손, 나의 이 짧은 고통이 그분께서 채워하셨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리라. 그날 난 주님을 생각하며 고통을 넘어서 감내할 수 있었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영혼을 감싸서 더욱 깊이 느끼지기 시작했다. 수술 다음날 아침 담담의사가 회전을 돌면서 광장지 열외에 찬 눈빛으로 "수술은 잘 되었고 완치율은 35%"라고 하였고 그때 나는 다 모르며 "나는 다 나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다. 수술 후 일주일 만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위로와 기도로 합병증 없이 퇴원할 수 있었다.

나의 수술 소식을 듣고 많은 형제 자매와 지인들이 병 문안을 온다고 할 때, 2월 20일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정치기훈련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문병을 민원했다. 그러나 수술한 지 20여 일밖에 되지 않아 몸이 온전치 못한 내가 어떻게 이들을 맞이할지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비시켜 주셔서 대부분이 예배 30분 전에 도착하여 나는 어려움없이 안내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정치기훈련에 내게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의 재발견이고, 은혜의 시간이었다. 나의 모든 사랑을 아시는 주님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노이다"(시 16:1)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8남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 어머니께서 유언으로 '예수를 믿지' 그 해도 믿지 않던 형과 누나도 대구에서 전주에서 청주에서 삶다하지 않고 달려와 당신의 은혜에 참여하고 나누게 하셨다. 정치기훈련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간 대구에 사는 누나는 그후 교회에 등록했고, 주일예배를 드리며 동생을 위해 기도한다고 전해왔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정치기훈련에 참여한 형제, 자매, 지인들을 부르셔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결심을 인도하셨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부부에게 은혜의 찬송(천군, 영혼의 햇빛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 부부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영혼의 햇빛 예수님'을 부르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쳐나며 성령 충만한 심령으로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열리는 제2차 정치기훈련에는 주님께서 또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된다. "주님, 앞으로의 나의 삶이 말씀을 바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법사에 감사하며 내 영혼의 햇빛 되신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빛을 내려주소서," 난 오늘도 우리의 생령되신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기도한다.

